



금융기관 자기자본제도(2): 은행의 자기자본규제 변화

김동겸 선임연구원

■ 1970년대 이후 금융규제 완화 및 국제화 진전으로 은행 경영상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기존 단순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대두됨.

- 금융규제 완화 및 국제화에 따른 은행 간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위주의 자산운용전략을 추구하여 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질이 저하됨.
- 또한,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규제 하에서 자금의 공여가 없이도 수익창출이 가능한 부외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은행의 잠재 리스크가 확대됨.

■ 1988년 7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의 신용리스크 관리를 통해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BIS비율 규제를 도입함.

- 도입 당시 은행의 신용리스크¹⁾만을 감안하여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의 종류와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²⁾을 8%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함.
 - － 국내의 경우 1992년 7월부터 경영지도기준의 하나로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1993년 말 7.25%, 1995년 말 부터 8% 기준을 적용하였음.
- 그러나 Basel I 협약의 경우 신용도가 다른 기업에 대해 동일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자산 유동화를 통한 규제자본 회피거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점 등이 지적됨.
 - － 신용리스크 가중치의 경우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가중치가 아닌 OECD 국가의 소속 여부로 결정되었으며, 신용리스크의 측정 시 기간구조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음.

1) 1990년대 이후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 증가로 보유자산의 가격변동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1997년부터 시장리스크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개정함.

2) 자기자본은 주식발행에 의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과 같은 기본자본(Core or Tier1 Capital)과 재평가준비금, 대손충당금, 기한부후순위채무 등과 같은 보완자본(Supplementary or Tier2 Capital)으로 구분함.

■ Basel I 의 운영 과정 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신 BIS협약(Basel II)의 제정을 추진하여 2004년 6월에 최종적으로 확정함.

- Basel II 의 경우 Basel I 을 개편한 최저자기자본 규제(Pillar1)에 감독기능 강화(Pillar2), 시장규율 강화(Pillar3)를 추가한 3개의 축으로 구성됨.
 - 최저자기자본규제의 경우 기존의 신용 및 시장리스크 이외에 운영리스크를 추가하고 신용리스크 산출 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 하였으며 신용등급은 외부 신용평가기관 또는 은행 자체 평가등급 사용을 가능하게 함.
 - 또한,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리스크관리체계를 감독당국이 평가하여 필요 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은행의 자본적정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함.
- 그러나 자기자본규제가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증대시키고 은행산업의 집중도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 문제는 Basel I 협약에서도 존재하였으나 기존 협약 보다 자산의 위험도를 민감하게 반영한 Basel II 에서 더욱 크게 부각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BCBS는 은행부문의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개혁방안의 내용을 담은 Basel III 기준서³⁾를 발표하고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이전의 보통주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위기 발생 시 손실흡수능력 제고와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손실보전완충자본 및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를 신규로 도입함.
 - 보통주자본비율의 경우 현행 2%에서 4.5%로, 기본자본비율은 4%에서 6%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최대 2.5%까지 추가 적립하도록 규정함.
- 레버리지가 높은 금융회사의 경우 위기발생 시 레버리지 감축 압력을 크게 받아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과도한 레버리지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익스포저 대비 기본자본비율이 3%를 초과하도록 하는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함.
- 또한, 위기상황에서는 보유자본이 충분하더라도 신용경색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게 되고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유동성비율⁴⁾ 규제를 도입함.

3) BIS(2010), Basel III: A global regulatory framework for more resilient banks and banking systems.

BIS(2010), Basel III: International framework for liquidity risk measurement, standards and monitoring.

4) 유동성비율은 은행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30일 동안 순현금유출액을 충당할 수 있는 고유동성자산을 100%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과 1년 동안의 가용안정자금에 필요안정자금의 100% 이상 보유토록 하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규제로 구성됨.

〈표 1〉 은행의 자기자본규제제도 변화

구분	자기자본비율 산출 방식	주요내용
Capital Accord (1988. 7)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신용)}}$	• 단순자기자본비율(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 신용리스크 반영
Basel I 개정 (1996. 1)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신용+시장)}}$	• 시장리스크 추가
Basel II (2007. 1)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신용+시장+운영)}}$	• 신용리스크 산출 방식 수정 • 시장리스크 추가
Basel III (2013. 1)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신용+시장+운영)}}$	• 신용 및 시장리스크 인식 범위 확대 • 자본의 질과 양의 강화 • 완충자본제도 도입 •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 유동성 규제 강화